

훈자계곡의 부슈라, 탁실라에서 만난 사니의 아내

한국이 반가운 파키스탄 - 외국인 노동자 가족들

김진명 | 내일신문 기자

파키스탄에서 한국이 반가운 사람들을 만났다. 바로 외국인 노동자의 가족들이었다. 두 시간 넘게 자갈길 부슈라에서 만난 소녀, 8년 동안 한국에서 일했다는 사니 부부, 한국의 시골에서 본 듯한 우리 여성들처럼 그들에게서 따뜻한 감정을 느꼈다.



훈자계곡에서 만난 친구 - 부슈라

파키스탄의 훈자계곡(Hunza Valley)에 일주일 정도 머무를 때였다. 빼놓을 수 없는 구경거리 중 하나가 독수리 둥지(Eagle Nest)라 해서 해질녘인데도 꼬불꼬불한 산길을 올랐다. 가도 가도 끝이 보이지 않아 길을 물으면 돌아오는 건 옛날 한국식 대답. “저기야.”

그렇게 두시간이 넘게 자갈길을 오르다 부슈라(Bushura)를 만났다.

“너는 이제부터 내 친구야.”

독수리 둥지를 코앞에 둔 조그만 산마을 누라바드(Nurabad)에 사는 소녀. 열두살 난 부슈라는 자기 몸집의 반은 뒤집힌 커다란 망태기를 메고 있었다. 감자를 캐서 담은 망태기는 소녀와 가족들의 매 끼니 밥상과 소소한 일상을 책임지는 농사도구다. 마을 앞에 펼쳐진 트락은 낭만적인 안뜰이 아니라 생활이 담긴 일터, 감자밭이었다.

내가 두 시간 넘게 오른 길을 걷고 거기에다 또 한시간 가량을 걸어서 부슈라는 학교에 다닌다고 했다. 저녁시간이면 또 망태기를 등에 지고 밭으로 나간다.

몇 마디 말을 주고받은 것밖에 없었지만 소녀는 나를 금세 친구로 삼았다. 그것도 ‘유일한’ (약간 과장됐겠지만 학업과 가사를 병행하는 가난한 산골 소녀에게 친구가 없는 건 당연할 지 모른다). 부슈라는 “내 첫 친구”라며 나를 반겼다.

소녀는 독수리 둥지에서 내려오는 길에 다시 만나자고 했다. 친구가 된 기념으로 자기가 캔 감자를 선물을 주고 싶다고 했다. 그 마음이 너무 따뜻해 그러마고 약속 해버렸지만 지름길로 산을 내려오느라 부슈라를 다시 보지 못했다. 언제까지고 밭고랑에 서서 나를 기다릴 것만 같은 소녀의 기억이 한참동안 내 여행길을 좇아왔다.

부슈라가 내게 쉽게 친근감을 느낄 수 있



었던 건 국적 때문이다. 그의 삼촌은 한국에서 3년째 일을 하고 있다고 했다. 부슈라는 “삼촌에게 연락을 자주 하기 어렵다”며 “한국에 돌아가면 삼촌에게 안부를 전해달라”고 했다.

8년동안 한국에서 일했다는 샤니 부부

파키스탄의 옛 수도 라왈핀디(Rawalpindi)로 가는 길. 간다라 유적지 탁실라(Taxila) 박물관 입구에서 들리는 이국적인 한국말. “아저씨 아줌마”.

8년동안 한국에서 일했다는 샤니(Shany) 부부. 스물네살된 새색시는 화려한 금붙이로 치장하고 있었다. 샤니가 결혼선물로 한국에서 사왔다. 신부에게 예물을 많이 할수록 능력있는 남자가 되기 때문에 500만원이나 투자했다(배낭여행자 숙소가 하룻밤에 2·3천원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엄청나다. 금은 저

축 대신이기도 하다).

샤니는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들어갔다 가 불법체류를 감행했다. 결혼 때문에 잠깐 고국을 방문했지만 다시 들어갈 길을 찾고 있다는 샤니. 이번 한국행엔 새색시도 동행할 예정이다. 한국에서 부부가 일하고 나면 사돈에 팔촌에 이르기까지 일가족이 먹고 살 수 있어서다.

남편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아내는 부엌으로 나갔다. 손뼉을 잡아 국물을 만들고 따뜻한 밥을 지어 쟁반 가득 내왔다. 신혼부부의 임시거처도 스스럼없이 공개하고 카메라 앞에서 얼굴을 돌리지 않았다(보통 여자가 얼굴을 내놓을지 여부를 결정하는 건 남편이나 오빠 남동생 아들 등 집안의 남자들). 그는 “한국인들이 파키스탄 사람들에 어떻게 하는지 안다”면서도 “어디나 나쁜 사람도 좋은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시골에서 만난 듯 따뜻한 여성들

항상 남자의 그늘에 조용히 서있는 파키스탄 여성들(실제 거리에 여성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음식점에도 여관에도 남성뿐이었다). 친척이 아닌 남자는 일단 경계한다지만 동성에겐 살가웠다. 남편 등 남성 보호자 없이 여행하는 이방인에 대해 호기심어린 눈을 빛내며 다가와 서툰 언어와 몸짓으로 감정을 나눴다.

그들은 30여년 전 한국의 시골에서 만날 수 있던 우리 여성들이었다. 안산이며 성남의 거리에서 부딪치곤 하는 거무스름한 피부의 ‘외국인 노동자’ 가족들이었다.